

“정읍에 첨단의료산단 조성”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 “인수위 과제서 소홀하게 다뤄져... 사업 성사 위해 적극 노력”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읍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읍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산단단지 조성사업’은 암 환자 등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 등의 시설을 짓고 동시에 첨단의료기기 생산시설 등 복합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여?야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현재는 인수위 과제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도지사가 되면 사업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호와 문화관광, 내장산을 연결하는 트리아앵글 관광벨트 사업이 조성 중”이라며 “도 차원에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용산호 주변에 내장산 골프장, JB금융연수원, 전기안전공사 연수원, 호텔단지 등을 연계해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아울러, “트리아앵글 관광벨트 연결 도로방을 전반적으로 살펴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돕도록 도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읍에 위치한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5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나설 것이다”라며 “스마트캠에

를 활용, 차세대인 케어서비스를 통한 차세대 관리 문제 해결과 어르신들의 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정읍을 모델로 만들어 도내 다른 시·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정읍시가 계획 중인 지역 제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정읍시가 계획 중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농업·축산용 미생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농·축산용 미생물을 개발하는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젊음·유능·청렴함 두루 갖춰”

민주 박용진 의원,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이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두세훈 예비후보(전 전북도의원,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전북 장수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4~2018년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결과 리스트 엑셀 파일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비리 유치형 명단이 드러나며 큰 파장을 낳아 ‘유치형 열사’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참여, 대한민국의 미래·변화·혁신을 주장하면서 비록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끝까지 완주했다.

박 의원은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를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과 본선거 기간에 청년농업인간담회 등을 통해 지켜보니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가 있는 완주를 만들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어 두세훈 예비후보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음·유능과 청렴성을 갖춘 두세훈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가장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유치



원 열사 박용진 의원이 후원회장을 흔쾌히 맡아 줘 어려운 청년정치 여건 속에서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저를 인정해준 박용진 의원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의전받는 군수가 아니라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민 복지증진 선제 대응·지속가능 사회보장제도 구축 기여

이명연 도의원,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감사패 수상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지난 13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영용)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도민의 복지증진 및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역의 열악한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명연 위원장의 헌신과 열정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권익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전국의 3만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명연 의원은 “앞으로 더욱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곳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아니라 사회복지직 공

무원의 애로사항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로 받는다”며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현직 군산시장, 기초의원 보궐 과정에 개입”

2020년 보궐 출마 후 사퇴한 전직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 준비 과정서 현직 시장이 후보사퇴 종용 직권 이용해 선거 개입은 범죄행위” 예비후보직 사퇴 요구

현직 시장이 기초의원 보궐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산에 거주하는 문지윤씨는 14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군산시의원 보궐선거 과정에 당시 강임준 군산시장 직권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군산시민들을 반복적으로 기만하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

다”고 밝혔다.

문씨는 “2020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진 군산시 바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실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 강 시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후보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강 시장은 문씨에게 “다음 선거에 나오면 99% 전락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선거에서 꼭 정치 물갈이를 하자면서 후보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문씨는 이후 사퇴를 결심하고 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님의 뜻대로 이번에는 내려놓고 싶습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현직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군산시민들을 반복적으로 기만하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불법 여론조작, 있어선 안될 일”

이돈승·한병락·양성빈 등 민주 완주·임실·장수군수 예비후보들 “브로커들이 캠프에 접근” 조작단 실제 폭로... “선관위 등에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휴대전화로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조사와 사법당국 고발 계획을 밝히며, 당 차원의 공천심사 방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돈승(완주군수), 한병락(임실군수), 양성빈(장수군수)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브로커들의 휴대전화와 청구지 바꿔치기 수법의 여론조사 조작 행위에 대해 경할 수사와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순창군수 예비후보인 최기환 예비후보도 이름을 올렸으나, 현장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실제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들이 통신사 휴대전화 요금청구

서 주소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현지인으로 둔갑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실제로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 캠프에 접근한 경우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 “연일 언론에서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위장전입을 통한 여론조작실이 보도되고 있어 열심히 달려온 후보들의 경우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에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후보들이 실체를 파헤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작이 사실일 경우 민주주의 근간과 정당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구태정치적 전형적 행태”라고 지적하며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철저하게 진상에 규명돼 경선에 임하는 모든 후보들이 어떠한 위구심도 갖지 않게 되기를 희

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이같은 내용으로 선관위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했으며 사법당국에도 휴대전화를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조작은 결과를 심하게 왜곡해 유능한 후보 대신 부패한 후보를 뽑는 결과를 의뢰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 공천심사인 여론조사 방식이 공정성을 갖추려면 해당 지역에서 요금납부가 6개월 이상 지속된 휴대전화만을 안심번호로 선정하거나 권리당원만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유호상 기자



지방선거 앞두고 제작되는 명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둔 14일 전주시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예비후보들의 명함을 제작하고 있다.

“전주에 확장현실 콤플렉스 건립”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가상·증강현실(VR·AR)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초현대식 어린이·청소년 콤플렉스 건립을 공약했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14일 정책발표를 통해 “전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수도권 또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핵심기술들을 체험해보는 대규모 XR(확장현실)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콤플렉스에는 VR·AR 체험관,



AI 체험존, 게임, e스포츠, e경제, e직업체험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접근성이 좋은 곳인 종합경기장 터가 1순위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XR 콤플렉스는 전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는 또 다른 공간에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대표발의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방송·영상 등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이용된 말미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 보호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얼마 전 발생한 드라마 태종 이방원 말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촬영동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동물보호단체·방송관계자들과 함께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연출자가 권고인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작사들이 이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영상물 촬영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품제작자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삼천 전면 재정비 할 것”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전문현답’ (전주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을 통해 전주천과 삼천을 전면 정비하고 개발해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 속 힐링명소로 변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 시민들의 생활 속 산책코스로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힐링공간이자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주는 ‘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전주천에서 드론촬영 체



험을 할 수 있는 ‘빛의 축제’를 개최해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드론 동호인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성장시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삼천을 반딧불 체험, 맨발로 걷기, 한궁, 태권도 시범, 모래씨름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모래놀이 등 각종 전시·공연·체험이 가능한 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